

'불륜시대' 친자확인소송 봇물

오모(29)씨는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닭지 않았다"는 소리를 자주 들 어왔다.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66)의 병대는 더욱 심해 졌다.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이유 였다.

참다 못한 오씨는 올해 초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 인 소송을 냈다. 확인 결과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법원은 "여러 증거 자료로 볼 때 어머니 박씨가 누군가와 동거해 원고를 출산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30년 동안의 부자(父子)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진 것이다.

직장인 A씨는 지난 1995년 부인 B씨와 결혼한 뒤 별다른 문제없이 가정을 꾸려왔다. 하지만 결혼 뒤 직장 때문에 부인과 떨어져 주말부부로 살아 온 A씨는 지난해부터 부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부인의 행동이나 말이 어쩐지 의심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혼 자녀 양육비·재산 상속 얽혀 광주지법, 작년 97건...6개월 걸러

A씨는 법원에 자녀들에 대한 친자 확인 소송과 함께 부인과의 이혼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부인 B씨는 남편의 소송에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주장했지만, 남편은 부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친자확인 감정결과 자녀들 모두 A씨의 혈육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원은 부인 이혼을 허가했다.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세 살짜리 딸을 둔 C(여)씨는 3년 전 가정불화로 잠시 가출했다 알게 된 남자 D씨가 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낸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D씨는

"3년 전 C씨와 잠시 생활을 할 당시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이다"고 주장했다. 남편과 재결합해 원만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C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법원은 "친자확인 결과 C씨 남편의 아이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부부 사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유전자(DNA)감식 기술이 발달하고 일반인도 병원을 통해 친자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접수된 친자확인 관련 소송은 97건. 인터넷 채팅을 통한 '만남'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중장년층 사이에도 '에인 만들기'가 보편화되면서 빛어

친 현상이다.

불륜관계를 의심, 소송 당사자 간 다툼이 벌어지고 주장이 엇갈릴 경우 재판부는 최종 단계인 DNA검사 명령을 내려 친자를 확인하게 된다. 소송기간은 대략 5~6개월이 소요된다. 과거 '양자(養子) 등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자(父子)관계를 맺었다가 이후 자신의 효적을 정리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경우 DNA검사까지 하지 않고 증인 과 증거자료 등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광주지법 가정지원 최창훈 판사는 "혈연에 대한 예측이 강한 문화의 영향으로 친자확인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소송 이면에는 불륜이 만연하는 사회 풍조에 혈연 관계에 따라 양육비와 상속권 등 재산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음주운전 법원 판례

법원	케이스	선고결과	판결 이유
대법원	주차장에서 술 취한채 운전하다 도로로 30cm 나옴	벌금 50만원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 벗어나면 음주운전 해당
	주위에 서툰 운전자 대신 음주상태에서 1m가량 운전	면허정지	공익적 목적 고려할 때 면허정지 정당
광주지법	술에 취해 개인택시 30m 물다가 적발	면허정지	가족 생계 고려한 원심판결 파기. 공익상의 필요성 강조
	술 취한 채 식당 앞에서 1m 가량 운전	벌금 30만원	거리 짧아도 음주운전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처벌 불가피
창원지법	대리운전 부른 후 주차장 밖 5m 운전	면허정지	거리 짧아도 운전 장소 차량과 사람 통행이 많은 곳
부산지법	주차단속반 경고 듣고 주차장으로 옮기려 14m 운전	벌금 300만원	사고 위험이 높은거리에서 운전한 만큼 처벌 불가피
대구지법	음주운전 적발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또 적발	면허정지	2차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운전의사가 경신된 것이므로 새로운 범의인 정립 가능처벌

주차장 30cm 벗어나도 음주운전

대법원 판결

주상복합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도로와 접한 경계선을 불과 30cm만 넘었다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모씨는 지난해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주상 복합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입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2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가 몰던 차는 주차장의 차단기 밖으로 앞바퀴만 불과 30cm가량 나와 있었지만, 주차장 밖은 보도를 연결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엄연한

'도로'였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의 일부라도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들어섰다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10월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음주 운전 차가 도로의 일부라도 진입하면 도로 교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된 이 모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도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조합원 총회 결의 없으면 노조 조직형태 변경 무효 광주지법 판결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시대의원 대회의 결의만으로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전주혜 부장판사)는 10일 광주 대창운수 조합원 박모(40)씨가 대창운수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함에도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출석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만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산별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 내지 신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임시대의원 대회의 결의만으로 산별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꾼 것에 반발, 같은 해 8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르신 안전 학교

광주시 북구 오룡동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10일 열린 '어르신 안전 학교'. 북구청은 올해 3월 말 현재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16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34.4%(55명)를 차지하자 이날 안전교육을 마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버지 폭행...22시간 방치 숨지게

완도경찰, 30대 구속

완도 경찰은 10일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천모(32)씨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12월 3일 새벽 1시에 완도군 완도를 고향 집에서 자신이 휘두른 주먹에 아버지(70)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피를 흘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2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천씨는 중상을 입고 200여m 떨어진 상가로 달아나 쓰러진 아버지를 이웃 주민들이 집으로 데려오자 현관 등에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2남 1녀 중 막내인 천씨는 평소 어머니의 과거 빚을 문제삼아 아버지가 자주 폭력을 휘두른 데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원도=정은기자 ejchung@

KTX 철로에 통나무·돌덩이...

철없는 장난에 鐵馬는 괴로워

탈선 대형사고 위험

최고 시속 160km로 달리는 KTX열차 철로에 폐 침목·돌 등 각종 장애물을 올려놓은 10대들이 적발됐다.

건설교통부 철도 공사사무소 순천분소는 10일 선로 위에 각종 장애물을 놓아 열차 안전 운행을 방해한 광주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16)군 등 10대 4명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9일 오후 4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송정역~극락강역 사이 광주선 선로 위에 폐 침목·돌덩이·각목·자갈 등을 올려 놔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다. A군 등을 붙잡고 장애물을 치운 직후 서울발 광주행 KTX가 이 구간을 시속 140km로 통과, 탈선 등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

다. 순천분소 측은 지난해 연말부터 수차례 이 구간 철로 위에 장애물이 설치되는 등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잠복 근무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5시께는 광주발 울산행 KTX가 같은 지점 선로 위에 놓여 있던 통나무·돌덩이 등과 충돌해 신호 감지장치가 손상, 열차 운행이 10여 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순천분소 관계자는 "고속도로 달리는 열차의 철로에 침목 등 장애물을 올려두면 열차 바퀴면에 설치된 민감한 각종 전자·기계 장비에 손상을 입혀 탈선 등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호기심이 자칫 수백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나원침 (7100) 김종두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636 최대단지!
| 풍광명천·효수공원 조망의 최고 단지 |
수원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 367-9000

취업공부 20대 도서관서 투신

10일 오후 12시 20분께 광주 M도서관에서 취업공부 중이던 C대학 졸업생 박모(26·광주시 북구 우산동)씨가 10m 높이에서 투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딸이 훔친 숲 어머니가 팔다 '덜미'

○...회사에서 훔쳐온 금을 보석상에 팔려던 모녀가 나란히 경찰서행.

○...10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박모(여·20)씨는 지난해 1월 중순 이후 자신이 일하는 광주 A 반도체 공장서 네 차체에 걸쳐 침에 사용하는 순도 99.9%의 '실금 골드 와이어'(시가 96만원 상당)를 훔쳤다는 것.

○...어머니 최모(47)씨는 딸이 훔친 금을 지난 9일 북구 운암동 모 보석상에 판매하려다 노래방 강도 용의자를 잡기 위해 귀금속상을 상대로 장물 수사를 받았던 경찰에 딸미.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Kwangju Ilbo



광주일보 창사 55주년을 축하합니다.

큰 나무는 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류에 흔들림 없이 55년을 지켜온 정론, 광주일보 —

인간과 환경, 자연을 생각하는 건축美學
주식회사 GA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일동

주식회사 토영이엔시
대표이사 김용훈
TEL.(062)383-9788 고객무료전화 080-7142-7777